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성료 “뚝뚝한 농기계 직접 보세요”

시청 일원서 ‘키움옴 가족행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주제로 개최

군산시가 20일 시청 일원에서 ‘키움옴 가족행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주제로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시민컨서트 up! 시 청사 스탭프 투어 외에 부대행사로 27개 읍면동 히스토리월, O.M.G(Oh My Gnsan) 정책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많은 시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가득한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졌다.



군산시가 20일 시청 일원에서 ‘키움옴 가족행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주제로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사회의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시민 모두가 주인공인 살기 좋은 군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온리원태권도 꿈나무팀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이후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모노합창단의 애국가 제창 시민의 장과 포범시민상 수상자 총 28명에 대한 시상, 기념사·축사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사전 접수된 참가자 100여 명에게 우리 시 주요 청사 시설 5개소(시장실, 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새

만금에너지지과, 분회회관)를 개방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날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된 읍면동 히스토리월과 O.M.G(Oh My Gnsan) 정책체험부스는 올해 우리 동네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위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히스토리월 형식으로 전시하고, 우리 시의 문화·복지·보건·건강 등 분야별

정책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한 해 시민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우리 시는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뚝뚝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입찰공고 단축, 공사대금 신속지급’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익산시, 선금집행 활성화와 한시적 선금집행특례 활용... 지급을 80%까지 높여 지급

익산시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입찰공고 방식과 선금·선고지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자금 흐름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선지급을 높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

선금·선고지 금액을 신속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미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선금 집행 활성화와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활용해 선금지급률을 80%까지 높여 지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 3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계약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관내 업체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업체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분기별로 관내 생산물품과 업체를 조사해 시 산하 전 부서에 지역업체 목록을 제공하여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선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발주 전부터 지역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홀로그램 기업, 요르단 야간경관사업 진출

익산 홀로그램 기업이 요르단 야간경관 사업에 진출하면서 익산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 메카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홀로그램에서 확장한 뉴미디어 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첫걸음을 내디디며 실감 콘텐츠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익산기업 크리에이티브 비터(대표 박보승)가 요르단 페트라 지역개발관

광공사와 세계 최초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루었다.

크리에이티브 비터는 지난 8월 익산 홀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서 홀로그램 콘텐츠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실감 콘텐츠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요르단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의 유적지로, 전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 관광지 중 하나다. 익산시의 미륵사지 유적보다 약 1500년 뒤인 800년경 설립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요르단 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익산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사 유적과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야간경관 관광산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3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서

전국 농기재 산업을 한눈에 살펴보는 농업기계박람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10년 만에 익산에서 다시 열리게 돼 반가움을 더한다.

익산시는 2023 익산 농업기계박람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해 열리는 2023 익산 농업기계박람회는 스마트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기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1만 7,980㎡ 면적에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과수기계 △경운·정지 △농산기공 △수확용기계 △이앙·정식 △과종 △임업기계 △재배관리기계 △축산기계 △부품 등 400여 기종을 선보인다. 지역 농업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기재를 행사장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31일 개막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초대 가수의 흥겨운 공연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 이어 박람회장에서는 4일간 스마트농업 기계 전시와 체험 시설원에 수출 활성화 정책 세미나, 농특산물 홍보, 참가객 경품 응모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업인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규모 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외에도 △과수기계 △경운·정지 △농산기공 △수확용기계 △이앙·정식 △과종 △임업기계 △재배관리기계 △축산기계 △부품 등 400여 기종을 선보인다. 지역 농업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기재를 행사장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31일 개막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초대 가수의 흥겨운 공연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 이어 박람회장에서는 4일간 스마트농업 기계 전시와 체험 시설원에 수출 활성화 정책 세미나, 농특산물 홍보, 참가객 경품 응모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업인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규모 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20일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해 주공시장에서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를 가졌다.

군산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20일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해 주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강시장과 송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제수용품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시민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펼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원광명 주공시장상인회장은 “이번 추석은 지역화폐를 이용한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훈훈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올 추석에는 우리 시민들이 넉넉한 인심과 고환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애용하여 시민과 상인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해 군산시 전 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이 전통시장을 방문토록 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2023 군산 짬뽕페스티벌 10월 7~8일 개최

올해로 3회째 열리는 군산 짬뽕페스티벌이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산시 동령길(장미동) 일원에 위치한 짬뽕특화 거리에서 개최된다.

시에 따르면 군산 짬뽕의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먹방 여행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좀 더 음식문화 관광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짬뽕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매년 짬뽕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전국 짬뽕 마니아들에게 다양한 짬뽕의 맛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업소는 짬뽕특화 거리 입점업소 9개소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내 짬뽕 맛집업소 5개소, 일본, 태국, 베트남 짬뽕 등 세계 이색 짬뽕 참여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짬뽕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짬뽕빵, 짬뽕빙수 등 짬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짬뽕푸드마켓에서 소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2023년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익산에서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한국애견연맹 익산지회)가 주관하는 2023 익산 동물보호 문화축제와 '제17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가 오는 10월 14~15일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자 추진된다. 앞서 동물보호 문화축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익산 FCI 국제 도그쇼를 포함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축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이웅중 교수 토크쇼와 특강, 훈련 시범, 무료검진, 문 제행동 교정 상담 전북대 수의과대학·원광대 반려동물산업 학과의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